‘더 나은 디지털 금융서비스 제공’

전북은행-라이나 생명, 마이데이터 플랫폼 활성화 등 디지털 금융 혁신 확장 ‘맞손’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 라이나생명보험 주식회사와 ‘더 나은 디지털 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서한국)은 라이나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라이나생명)와 ‘더 나은 디지털 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이날 업무 협약식은 라이나생명 서울 본사에서 실시했으며, 전북은행 박종춘 부행장과 라이나생명 이종석 전무가 참석했다.

이번 협약으로 전북은행은 ▲헬스케어 서비스 기반 마이데이터 플랫폼 활성화 ▲디지털 보험 연계 신사업 발굴 ▲기타 공동발전을 위한 상호 협력관계 구축 등 다양한 사업 추진으로 고객에게 새로운 금융 디지털 경험 혁신을 제공한다.

또한 마이데이터 플랫폼 내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데이터 기반 금융상품 판매 및 구독 서비스 등 관련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박종춘 부행장은 “전북은행은 디지털과 비대면으로 대표되는 시장 변화에 맞설 경쟁력 제고를 위해 디지털 혁신을 준비 중”이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금융과 헬스케어가 만나 고객에게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하고, 마이데이터와의 융합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기 위해 관계사들과 긴밀한 협업 관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북은행 마이데이터 플랫폼은 현재 나의 자산서비스, 금융 캘린더 서비스, 신용점수 조회 서비스, 부동산 시세 및 실거래가 조회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생활금융플랫폼으로 확장할 수 있도록 정책자금 추천 서비스, 실손보험 빠른 청구서비스 등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순차적으로 선보일 계획이다.

/최대희 기자

농촌진흥청 박병홍 청장은 22일 전북 김제시에 위치한 ‘스마트팜 혁신밸리’, ‘밀 산업 벨리화 시범단지’를 방문해 추진 중인 디지털 농업기술 개발과 현장 확산을 위한 단계별 이행 계획을 점검했다.

디지털농업 현장 속으로

농진청장,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 등 방문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빅데이터, 인공지능 기술이 농업분야에 활용되는 디지털농업의 전환이 대두됨에 따라, 농촌진흥청은 디지털농업을 조기에 농업 현장에서 구현하기 위해 ‘디지털농업 촉진 기본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농촌진흥청 박병홍 청장은 22일 전북 김제시에 위치한 ‘스마트팜 혁신밸리’, ‘밀 산업 벨리화 시범단지’를 방문해 추진 중인 디지털 농업기술 개발과 현장 확산을 위한 단계별 이행 계획을 점검했다.

이날 방문한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정부의 지능형 농장 정책의 핵심 사업으로, 농업과 첨단기술이 융합된 스마트팜 확산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전국 4개 지역(1차-전북 김제·경북 상주, 2차-전남 고흥·경남 밀양)에 조성했으며, 스마트팜 규모화·집적화를 통해 청년 창업보육, 청년농 대상 임대형 스마트팜 지원, 스마트팜 기술의 연구·실증 등 생산·교육·연구 기능을 갖추고 있다.

이 자리에서 박 청장은 “디지털농업으로의 전환이 안정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농업기술을 연구·개발하는 민-관 기관, 산업체, 대학의 역할 분담과 협업이 매우 중요하다”며 “각 주체가 부족한 부분을 상호 보완하면서 기술의 신뢰성을 높여야 개발된 기술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박 청장은 국내 밀 산업 기반 구축에 기여하기 위해 올해 첫 추진하는 시범사업인 ‘밀 산업 밸리화 시범단지’를 찾았다.

박 청장은 “쌀 다음으로 많이 소비되는 밀은 수입의존도가 높아 식량안보를 논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곡물이다”라며 “우리나라에서 재배하기 쉬우면서 가공 수요에 적합한 국산 밀 품종의 개발·보급을 확대하면서, 재배안정성 향상, 품질 제고 및 관리체계 확립, 밀 중심 2모작 확대 보급 등 중점 추진 과제를 차질 없이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진청은 농업회사법인 ㈜우리농촌살리기공동네트워크를 중심으로 국산 밀 생산·가공·유통·소비 분야별 협력을 통해 제분, 가공품 개발, 교육·체험을 활성화해 국산 밀의 소비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국내 밀 자급률 제고 정책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국산 밀의 품질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과 보급을 확대하고 있다.

/최대희 기자

aT김춘진 사장, 미국 내 ‘김치의 날’ 확산 공로 감사패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22일 본사에서 국내 김치산업 발전과 김치 세계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김춘진 사장은, 이하연 (사)대한민국김치협회(이하 김치협회) 회장과 장해춘 세계김치연구소 소장을 만나 김치 소비 확대와 해외 홍보·수출 강화를 위한 협력을 논의하고, 이 자리에서 김 사장은 미국 내 ‘김치의 날’ 제정 확산과 김치 수출 확대 등에 기여한 공로로 김치협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11월 22일 ‘김치의 날’은 김치의 우수성과 가치를 알리기 위해 2020년 국내에서 제정된 법정기념일로, 현재 미국 캘리포니아주, 버지니아주 그리고 뉴욕주에서 ‘김치의 날’이 제정됐으며, 앞으로 공사는 미국 전역으로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김 사장은 “김치는 한국이 종주국이며, K-Food의 대표주자”라며, “김치산업 발전을 위해 김치협회·세계김치연구소와 긴밀히 협력하고, 김치 소비 확대 및 해외 홍보·수출을 강화해 전 세계에 K-Food 위상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대희 기자

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이 김치협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전북농협, 농·축협 신규직원 동시채용 실시

전북농협(본부장 정재호)은 지역인재 채용 확대와 우수인력 발굴을 위해 2022년 전북 지역 농·축협 신규직원 동시채용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채용접수는 23일부터 30일까지 농협 홈페이지(www.nonghyup.com) 또는 잡코리아 홈페이지(oras.jobkorea.co.kr/nhrecruit)에서 가능하며, 5월 8일 인·적성 및 직무능력검사, 5월중 면접 및 신체검사를 거쳐 5월말에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계획이다. 또한 응시자격은 채용 공고일(23일) 전일 기준으로 응시자 본인, 부, 모 중 1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채용단위별 응시지역 내이면 가능하며, 그 외 세부사항은 채용공고에 명시되어 있다.

한편 전북농협은 최근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인재의 채용확대를 위해 지역에 연고를 둔 인재를 선발하고 있다. 특히 이번 채용에서는 전북동부보훈지청과 협의를 통해 보훈청 취업홈페이지에도 채용공고를 실시하는 등 취업지원대상자의 고용확대에 힘쓰고 있다.

정재호 본부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을 통해 지역사회와 농업에 헌신할인재를 선발하겠다”며 “일미칠근(一米七斤)의 자세로 ‘함께하는 100년 농협’을 같이 만들어 갈 지역 인재들의 많은 지원을 바란다”고 전했다.

/최대희 기자

소상공 비대면 경영전환 지원사업 공모 시작

전라북도·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원장 이현웅)이 운영하는 전북소상공인광역지원센터는 ‘소상공인 비대면 경영전환 지원사업’의 ‘온라인판매기반조성’ 분야 지원업체를 모집을 시작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사업은 변화하고 있는 소비 패턴에 따라 도내 소상공인의 온라인 판매 기반을 조성해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세부적으로 ‘온라인판매기반조성’ 분야는 온라인 판매에 필요한 ▲사진촬영·상세페이지 또는 ▲홍보영상 제작 비용을 지원하며, 업체당 최대 250만원, 총 157업체를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에 시범적으로 실시해 소상공인들의 많은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전년도에는 도내 소상공인 263개 업체가 지원받았으며, 그 중 210개 업체가 제작한 결과물을 온라인 채널에 활용해 비대면 판매에 큰 도움을 받았다. 올해 사업은 도내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경진원 홈페이지(www.jbba.kr)에서 모집 공고 확인 후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전북소상공인 콜센터(1588-0700)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최대희 기자

신협, 자금세탁방지시스템 개선

신협중앙회(회장 김윤식, 이하 신협)는 지난 21일 새로운 자금세탁방지시스템을 오픈했다.

22일 신협에 따르면 이번 자금세탁방지시스템 개선은 관련 업무 강화를 위해 에이블컨설팅과 협업해 진행됐으며, 중심 내용은 ▲내부통제 강화 ▲고액현금거래보고(CTR) 편의성 제고 ▲의심거래보고(STR) 전면 개편 ▲위험평가 편의성 제고 등으로, 이를 통해 신협은 자금세탁위험 전반에 대한 강력한 모니터링을 추진하게 된다.

또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권고에 따라 위험기반접근법(Risk Based Approach; RBA) 체계를 강화하고, 자금세탁방지 제반 업무에 대한 컨설팅 실시 및 업무 안정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최대희 기자

‘춘향애인 수미감자’ 온라인서 만나요

전북농협, 네이버 쇼핑 통해 오늘 할인 판매

전북농협(본부장 정재호)은 남원시조합공동사업법인(대표이사 백남정)과 함께 네이버 쇼핑을 통해 23일 오전 11시부터 남원 ‘춘향애인 수미감자’를 할인 판매한다.

이날 판매는 네이버 쇼핑 라이브커머스를 통해 생방송으로 진행되며, 방송이 끝난 후에도 31일까지 22%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특히 방송시간 동안 구매한 소비자에게는 한박스 더 이벤트도 함께 진행된다.

정재호 본부장은 “코로나19로 농산물 판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돕고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농산물을 홍보 및 판매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며 “소비자들에게 신선한 농산물을 저렴하게 제공하고 농민들에게 안정된 판매로 농가소득을 증대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대희 기자

농촌진흥청과 전북도가 공동으로 주관하고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이 운영하는 전라북도농생명연구협의체의 kick-off 회의가 22일 전주 그랜드힐스턴 호텔에서 개최됐다.

새정부 농생명 정책변화 대응

전북 농생명연구협의체, 올 첫 회의 개최

농촌진흥청과 전북도가 공동으로 주관하고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원장 김동수)이 운영하는 전라북도농생명연구협의체(이하 연구협의체)의 kick-off 회의가 22일 전주 그랜드힐스턴 호텔에서 개최됐다.

연구협의체는 전북도를 농생명산업의 실리콘 밸리로 육성하기 위해 2014년 12월에 출범했으며, 혁신도시 이전 농생명 연구기관과 전북 소재 연구기관, 대학 등 27개 기관이 모여, 기술교류 및 협력강화를 통한 공동 협력과제 발굴과 지역 농생명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올해는 농촌진흥청, 전북도,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한국원자력연구원 첨단방사선연구소,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전북분원, 안전성평가연구소, 도내 5개 종합대학 등 공공·정부출연기관 27개 기관이 참여해 식품, 종자, 동물용의약품, 미생물, 첨단농업, 첨단축산 등 6개 분과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는 2022년 연구협의체 운영계획과 함께 농진청 농업연구 개발사업 추진에 대한 주제발표가 있었으며, 전북도청 농축산식품국 신원식 국장의 주재로 참여기관 간담회가 진행됐다. 이어서 간담회는 20대 대통령 선거가 마무리됨에 따라, 새정부 국정운영 기조와 정책 변화에 따른 지자체의 대응이 어느때보다 중요한 시기라며, 상시 협력 채널을 통한 기관 간 현안 정보를 발 빠르게 공유해 차기 정부에 맞는 신사업 발굴을 추진하는 등, 전북을 농생명 연구개발의 핵심 거점으로 만드는 데 앞장서기로 의견을 모았다.

신원식 국장은 “연구협의체가 새로운 정책발굴을 통해 축적한 농생명 인프라 기반위에 수준 높은 국책사업발굴로 새정부 국정운영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수 원장은 “연구협의체를 통해 기존 발굴사업을 고도화하고 추가적인 신규사업 발굴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참여기관 위원 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부탁한다”고 전했다.

/최대희 기자

전북대, 지역 소상공인 기술개발 혁신 지원

올해 생활혁신형 기술개발 호남 운영기관 선정

전북대학교 산학협력중점사업단(단장 송제호)은 ‘2022년도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생활혁신형 기술개발 사업’의 호남권역 진단·기획기관에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

이 사업은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소상공인의 기술·제품·공정·서비스 개발 등의 아이디어를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협력과 지원, 네트워크 및 연구 장비 활용 등을 통해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것으로, 전북대를 비롯해 전국 3개 기관이 선정됐다.

사업단은 기술분야별 우수 지원인력과 다년간의 R&D사업 수행 경험을 인정받아 2020년과 2021년에 이어 3년 연속 운영기관이 됐으며, 호남권(전북, 전남, 광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이에 사업단은 4월중 1단계(2개월/과제당 500만원) 지원으로 20여개 내외의 진단·기획과제를 모집하고, 전북대 이공계 교수진 등 전문가 매칭을 통해 2단계(6개월/과제당 3,000만원) R&D과제로 연계 지원할 계획이다.

송제호 단장은 “대학이 가진 우수한 네트워크와 인프라를 활용해 소상공인의 기술개발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혁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 코로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호남권역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과 혁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